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서 대규모 채용박람회 330여 명 지원

2026. 3. 29.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 대구·경산 5개 풀필먼트센터 공동 참여 상담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채용'
- 4월 부천시 대규모 채용 박람회 예정 "올해도 안정적 일자리 지속 창출할 것"

2026. 03. 29.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4일 수원에 이어 대구에서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CFS는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단독 채용박람회에 335 명의 구직자가 지원 접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영남권 '로켓프레시' 물류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와 경산 지역에 위치한 4개 쿠팡 풀필먼트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모집 분야는 입고, 출고, 재고·반품 검수, 지게차 운행, 물류 현장관리자 등으로 지역 청년과 여성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 눈길을 끌었다. CFS는 이번에도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채용 시스템을 운영했으며, 무료 증명사진 촬영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물류 현장관리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CFS와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해 9월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규모 채용박람회에는 총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대구는 남부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의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 분야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 26일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채용박람회에서 취업상담 및 현장면접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

CFS는 현재 대구와 경산, 칠곡을 포함한 대구 권역 내 주요 지역에서 쿠팡 풀필먼트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구 풀필먼트센터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다양한 시 기반 자동화 로봇 기술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낮추고, 고객을 위한 로켓배송 서비스 품질은 끌어올린 ‘최첨단 미래형 물류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CFS는 이번 대구 박람회에 이어 오는 4월 21일 부천에서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